

“MB, 정치서 손 떼고 민생 전념해야”

박지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추경 편성 축산농 지원 등 제안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에서 손을 떼야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 18대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가운데 가장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이 대통령은 재보선, 정권재창출 등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대통령 주변의 문제를 정리하고 책임질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고해사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인지가 판가름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성공의 길로 간다면 민주당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시급히 편성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

그는 추경이 필요한 이유로 “작년 예산 날치기 과정에서 방화중 결석 아동 급식예산 등이 날아가버려 이를 복원해야 하고 반값등록금, 규제역 축산농가, 비정규직 지원 예산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물가관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끝내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서 ▲고환율 정책 수정 ▲유류세 및 통신비 인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대학장학금 대폭 지원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또 일본 원전 사고의 교훈으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진정 진서 민 정책을 말한다면 노동현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사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과건 문제, 전 북버스 장기파업,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다루는 국회 노동현안특위 구성과 함께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다.

특히, 박 대표는 남북 관계와 관련, “북한 핵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 6자 회담을 재개 대 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하 뒤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대북 식량지원 실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했다.

4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물러나는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자부한다”며 “여야가 서로를 인정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나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박 대표의 연설에 대해 한나라당 등 여권에서는 ‘정략적 연설’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용이 돋보이는 때끄러운 연설이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박 의원의 이날 연설은 일방적으로 정부를 몰아 치기 보다는 짚을 곳은 짚어가며 긴 정성을 갖고 호소하는 내용으로서 설득력이 컸다”며 “18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가운데 가장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의원 입법로비 허용·당선무효 완화·기업후원금 등 제동 ‘그들만의 입법’ 비난 여론에 백기

자신들만을 위한 입법이란 비난을 받아온 국회의원의 입법 시도가 줄 줄이 실패하고 있다.

입법로비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당선 무효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공직선거법 개정 등이 여론의 역풍을 맞아 무산된 것이다.

또 중앙선관위가 준비해온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허용 및 정당 후원회 허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에도 제동이 걸렸다. 역시 싸늘한 비판 여론 때문이었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선관위를 내세워 ‘청부 입법’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한 일명 ‘청탁회법’의 경우 지난달 4일 행안위 문턱을 넘을 때만 해도 국회에서의 일사천리 통과가 예상됐지만, 청문회

사건 연루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서야 입법 행보를 중단했다.

또 당선 무효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당초 공동발의자에 포함됐던 의원 21명 중 3명이 발의를 철회하는 등 논란을 빚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을 현행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무효형을 300만원 이상에서 7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내년 총선 때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

할 수 없게 됐으나, 개정안대로라면 출마가 가능하게 된다.

선관위가 마련한 기업후원금 허용 관련 개정안도 비판 여론 때문에 무산됐다. 선관위는 4일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지출 기탁과 중앙당·시도당 후원회 허용 방안을 법 개정 의견에서 빠지로 최종 결정했다.

18대 국회가 계파정치, 폭력국회라는 불명예에 더해 이른바 ‘의원 살리기’, ‘제 밥그릇 챙기기’로 입법권의 위상마저 떨어뜨린 셈이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5일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18대 국회가 생존전략과 탐욕으로 스스로 독배를 마시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합의 없이 국회가 정치관계법을 주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법 개혁 원만한 합의안 만드는데 역할 할 것”

민주 비례대표직 승계 김학재 전 법무차관

“비록 1년 임기 동안이지만 낮은 자세로 민의를 수렴, 이를 당의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민주당을 수권·대안 정당으로 만드는데 뒷받침을 하고 싶습니다”

5일 4·27 재보선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민주당 최순진 전 의원의 의석을 승계한 김학재(66) 전 법무차관은 “현 정부의 실정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이에 따라 야당에도 기회가 온 것 같다”며 이같이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오랫동안 검찰

에 근무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다”며 “현재 국회(사법 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검찰과 국회의 양보를 이끌어 내 원만한 합의안을 만드는데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 크린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것이 인연이 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18번)에 신청했다가 이번에 의사당에 입성했으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로 배



정됐다. 대신 법사위 소속이었던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기획재정부로 자리를 옮겼다.

김 의원은 해남 화원 출신으로 목포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겸 차관, 대검 차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법무연수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하반기 재보선부터 지하철 투표소 허용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시범적으로 지하철이나 백화점 등에 투표소를 운영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선관위는 전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유권자

가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서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 활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면 프린터 등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어 기존의 학교·공관서·공공

기관 등이 아니더라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시범 적용하고 총선이나 대선 등 전국적인 선거에 적용할지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의견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7일 대선 싱크탱크인 ‘국민시대’를 공식 출범하고 대권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건다.

민주당 빅3 중 한 명인 정 최고위원이 대권 행보를 시작함에 따라 대선 싱크탱크의 보폭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시대 대표는 김수진 교수와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이 공동으로 맡고, 이문영 고려대 명예교수, 한명숙 전 총리, 성유보 전 방송평가위원장, 소설가 박범신씨, 정 최고위원이 교문을 맡는다.

정책위원으로 김선화 교수(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송기도 교수(전 콜롬비아 대사), 윤성식 교수

대권행보 본격 시동건 정세균

대선 싱크탱크 ‘국민시대’ 내일 출범

(전 정부혁신지침방편권 위원장), 고형일 전남대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수진 전 전북대 총장, 이우선 성신여대 대학원장, 고창훈 제주대 교수, 이남순 전 한국노총위원장, 권재철 전 청와대 노동비서관, 류희인 전 NSC 사무처장,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참여한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시대를 통해

올 상반기에 경제·노동·복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문화한 뒤 하반기부터는 현재 구성 중인 전국조직을 가동, 지지도를 높이고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 행보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 최고위원 측은 5일 “국민과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특히 자신의 ‘분수경제론’을 발족식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 최고위원의 분수경제론은 서민·중소기업 경제가 분수처럼 솟아올라 성장을 견인하게 한다는 개념으로, 부자·대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이른바 ‘낙수경제론’에 대비되는 경제성장론이다.

그는 분수경제의 관건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개념의 기업집단법 제정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집단교섭 허용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 전면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홈페이지제작은 기본! 모바일홈페이지 까지!

도메인 호스팅
로그인 디자인 컨설팅

홈페이지만 만들면 이 모든것이 무료!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상담 필수!
(아이폰, 안드로이드 용)

상담문의 010-2637-9358
마블아이앤씨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KDB빌딩 1904호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 성기능 강화제는 화분,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이나믹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있고 단백질질을 저장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쿠나프린트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화분의 효능이란? 생식세포를 말하는 것으로 식물이 가진 영양성분이 집약된 것입니다. 화분속에는 22종의 아미노산, 27종의 무기질, 18가지의 비타민 등 약 185종의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체내에서 합성이 어려운 체외로부터 섭취해 주어아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화분속 단백질이 모두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영양공급원입니다.

섭취방법 및 제품특징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약 1시간 전에 1정을 복용하면 1~5까지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발기 전후 안되시는 발기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1일 1정을 3~7일정도 연속적으로 복용하시면 발기가 잘되며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정을 복용후 너무 강하게 강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1/2정(반나누어)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상담 주문 02)2231-0533
010-7770-8138 ※ 주문즉시택배 / 무료배송
농협 : 707019-56-138536 (예금주 : 권옥년)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라비이트·시간제가능·연령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

식당용 중고품
- 매매전문 -

냉장고 A/S전문 주방용품

광주·전남,북 전지역 출장환영

타 업체보다 더 드립니다!!

백두산 중고매장

직통 011-9430-1698

양동1 육교 명동로 본점 062) 521-6677
전대사거리 백두산빌딩 4층 101호 북구점 062) 524-3377
전대정문1 전대사거리 101호 지하1층 101호 침단점 062) 945-8778